

광주공항→무안국제공항 서둘러 이전 호남·충청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해야

정부 투자 동남권 거점 김해공항에 집중...기반시설 격차 심화
軍공항 이전도 포함...광주시·전남도·정치권 ‘삼각 공조’ 필요

정부가 동남권 거점 공항인 김해 공항에 대대적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과 맞물려 광주공항의 조속한 이전을 통해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광주공항의 이전을 제안하고 전남도가 통 크게 이를 받아들이는 한편, 지역 정치권이 이를 뒷받침하는 ‘삼각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광주공항 통합에 대해 지자체와 정치권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무안국제공항에 대한 정부의 신규 투자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남권 거점공항인 김해공항에 대한 정부 투자가 집중될 예정에 있어 국가 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차별과 격차가 심해질 전망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개항

이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반 구축’과 관련 정부에 예산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되짜를 맞고 있다. 내년에도 활주로 2800m에서 3200m로 연장(354억 원), 수하물 처리 확대(46억 원), 계류장 확대(80억 원) 등 모두 526억 원의 소요 예산 가운데 20억 원 반영을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2017년 완공 예정인 호남고속철 2단계(광주송정~목포)도 무안공항 경유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부처와 전남도가 갈등을 빚으면서 자칫 완공 시기를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무안공항에 대한 투자 중단의 표

면적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통합 문제다. ‘지자체 간 합의의 여부에 따라 통합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5월 고시된 국토교통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명시했다.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에서도 같은 이유로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에 대한 신규 투자를 하지 않았다. 이 같은 프레임에 갇혀 지난 10년간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공항은 제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면으로 계속>
/임동욱·윤현석기자 tuim@kwangju.co.kr



박승춘 보훈처장

野 “박승춘 해임” “5·18 모욕” 세번째 해임안 3당 공동 발의 與 “장관급 격상” “정쟁” 치부하며 되레 “보훈처장 직급 올려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23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박처장에 대한 해임안 제출은 2013년과 2015년에 이어 세번째다.
더민주 박원주, 국민의당 김광영,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 결의안을 제출했다. 야 3당은 결의안에서 “박 보훈처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잔인하게 유혈 진압한 제11공수특전여단을 올해 6·25전쟁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투입하는 행위를 기획·추진했다”며 “(이는) 계엄군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목숨으로 수호한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비하하는 국민 모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박 보훈처장은 올해 제36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을 끝까지 거부, 국민분열과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박 보훈처장을 해임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박 보훈처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헌법에 규정된 해임건의안은 대상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제한돼 있어, 보훈처장에 대해서는 해임촉구결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경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처장의 해임을 주장하는 것은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야 3당의 과열경쟁, 호남패권경쟁의 일면”이라며 “국가기관장 해임요구가 정쟁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산하 민생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현재 차관급인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보훈처장 직급 격상에 특정 개인은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는 문화의 미래” 제7차 아셈 문화장관회의의 참가국 대표들이 23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국가별 정책과 창조산업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문화장관회의는 24일 세션별 공동의장 회의, 차기 개최국 발표, 남도문화 기행 등 일정을 진행한 뒤 폐회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시아·유럽 각국 ‘창조혁신도시 연대’ 만들자”



아셈 문화장관회의...윤장현 시장 ‘광주 제안’
문화장·차관 20여명 등 44개국 160명 참석

“아시아와 유럽 각국에 ‘창조혁신 도시 연대’(CICA·Creative Innovation Cities Alliance)가 필요합니다.”
아시아 유럽의 문화창조 역량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제7차 아셈(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 문화장관회의의 개최식이 23

일 오전 10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본 행사로 진행된 분과 회의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은 ‘창조산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CICA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개최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 시장, 폴란드 의 피오트르 글린스키 부총리 겸 문화부

장관을 비롯한 문화 장·차관 20여명 등 44개국 대표단 16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개회사, 윤 시장의 환영사, 황교안 국무총리의 축사, 기념촬영·핸드프린팅 등 순으로 진행됐다. 핸드프린팅은 동판으로 제작돼 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 전시된다.
황 총리는 축사에서 “국경을 초월한 문화의 힘은 지구촌을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아셈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문화협력은 한층 더 강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식을 마친 대표단은 문화와 창조경제와 관련한 각국 정책사례를 발표하는 본회의를 열었다.
윤 시장은 제1분과 회의에서 ‘첨단산업과 창조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매년 CICA 시장회의를 열어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혁신 콘텐츠를 전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인적교류 활성화와 관련 기업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문화장관회의는 24일 차기 개최국 발표, 남도문화 기행 등 일정으로 마무리된다. 김종덕 장관은 회원국들과의 논의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웹툰, 세상에 포효하라’

2016 광주세계웹툰콘텐츠페스티벌 개막...26일까지 문화전당

23일 개막한 ‘2016 광주세계웹툰콘텐츠페스티벌’(이하 페스티벌)이 본격적으로 손님을 맞는다. 페스티벌은 ‘웹툰, 세상에 포효하라’를 슬로건으로 26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열린다.
24일 오후 2시 5·18민주광장에서는 ‘초통령’ 도티 팬사인회, 3시30분 광장 메인무대에서는 양명익 참여하는 릴레이토크가 열린다. 힙합그룹 나쁜 녀석들, 어깨걸색 등이 참여하는 음악 공연도 펼쳐진다. <관련기사 16면>
25일에는 다양한 인기 크리에이터들을 만날 수 있다. 오후 3시부터 마일드, 대도시관, 데이브가 차례로 팬사인회를 연다. 또 안재익, 램램, 조섭, 대도시관, 최고기, 김재인 릴레이 토크와 더스롭, 팡피디, 헤강, 라임듀보, 언화, 데이브가 진행하는 크리에이터 멘토링이 진행된다. 광장에

서는 오후 1시부터 푸아TV와 콧도리가 참여하는 오픈 스튜디오를 볼 수 있다.
그밖에 행사기간 민주평화기념관(옛 도청)에서는 추억의 게임존, 웹시리 영화관 등 웹툰 놀이터가 꾸며져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또 구글, 네이버, 빅프로 그 등 국내외 콘텐츠업체와 학계가 참여하는 국제컨퍼런스, 전시회, 비즈매칭도 마련된다. 문의 062-601-485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디자인을 밝히다

The new generation CLS-Class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화정동)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LS 400 2,996cc, 1,809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10.0km/ℓ(도시연비 8.8km/ℓ, 고속도로연비 11.9km/ℓ),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77g/km • CLS 63 AMG 5,461cc, 1,93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6km/ℓ(도시연비 6.5km/ℓ, 고속도로연비 9.8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38g/km
*CLS 63 AMG 4MATIC 5,461cc, 2,01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1km/ℓ(도시연비 6.1km/ℓ, 고속도로연비 8.8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56g/km • CLS 63 AMG S 4MATIC 5,461cc, 1,995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1km/ℓ(도시연비 6.2km/ℓ, 고속도로연비 8.6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55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